



3면

만민역사공동회 · 긴급대토론회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음 8월 23일) 제3592호

대표전화 (063)288-9700

## 전주시, '후백제 왕도' 구축 집중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  
역사문화 체험 거점 조성  
낙수정 마을 접근성 강화  
전주고도 지정에도 총력

전주시가 후백제 관련 역사 문화를 조사·연구하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의 전주 유치와 발맞춰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관련기사 16면>  
우범기 전주시장은 2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의 건립 후보지로 전주가 선정된 것은 전주가 가진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오래전 이곳 전주에 백제의 부활을 알린 후백제가 도읍을 삼은 것처럼 이제 전주는 새롭게 태어나 다시 후백제의 왕도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 관련 브리핑을 갖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민선8기 대표 공약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이 전주로 확정된 것은 견훤왕이 전주를 왕도로 삼아 후백제를 건국한 역사적 사실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시가 후백제 왕도로서 그동안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등 후백제 역사 규명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문연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선정에 한몫했다.  
이에 시는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와 발맞춰 그동안 기획하고 준비했던 '후백제 왕도, 전주'를 알리고, 후백제 역사 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후백제역사문화센터가 들어설 교동 낙수정 일원은 인근 동고산성과 연계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발이산 일원에 후백제 역사공원을 만들어 한옥마을·오목대과 낙수정 일원을 연결할 예정이다. 발이산은 2023년부터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후백제 도성벽 및 고도성의 흔적을 찾은 곳으로, 이곳에 후백제 도성벽에 대한 복원·정비와 함께 탐방데크 설치, 역사정원 조성 등 추진할 예정이며 후백제 유적지 발굴

계획을 수립해 역사관광도시 전주의 토대를 닦는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시는 현재 7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후백제의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후백제지방정부협의회에 타지자체의 추가 참여를 독려하고, 공동사업 및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확대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후백제를 널리 알리는 데 집중기로 했다.  
시는 향후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후백제지방정부협의회 등과 협력해 △후백제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기 학술대회 △유적지 발굴조사 지원 △후백제 역사문화 학술지 발간 등 역사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 관련 지자체들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범기 시장은 "후백제역사문화센터의 건립은 본격적인 후백제 역사문화 규명과 활용의 시발점으로, 오랜 시간 역사에서 잊힌 후백제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그동안 밝혀진 후백제 도성의 복원과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과거와 현대가 결합한 전주만의 후백제 역사테마파크 등 후백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관광객이 찾는 역사관광도시를 만들어 전주가 다시 우리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익기 기자

### 세계 어린이 무형유산 축제 내달 4-5일 국립무형유산원서

2024 세계 어린이 무형유산 축제 가 10월 4~5일 이틀간 국립무형유산원 야외무대 일원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가 주최하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해외 어린이 공연단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국립민속박물관 등 국내외 문화유산 기관에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사는 세계 어린이 무형유산 공연 한마당, 세계 어린이 무형유산 체험 부스로 구성됐다.  
먼저 세계 어린이 무형유산 공연 한마당에서는 △전주 어린이 기쁜놀이 △스리랑카 가면춤, △말레이시아 대나무춤 △베트남 전통 사자춤 등의 국내외 무형유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어린이 무형유산 체험 교실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가옥 유르트 만들기 △베트남 전통장난감 짚은뚜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정은성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왼쪽)와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4일 전북 체육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 '내달 11일 개막' 전국체전 전북선수단 필승 다짐

## "전북 체육의 힘 보여주자"

정강선 회장·선수 등 500여명 참석... 결단식 개최

"전북 체육의 힘을 보여주자"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필승을 다짐했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이날 도 체육회관 1층 야외광장에서 '제105회 전국체전 전북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다.  
이날 결단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박정규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과 도의원들, 언론사 대표, 도 체육회 임원과 고문, 시군체육회장, 종목단체장, 선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공연인 '난타 공연으로 막을 연 결단식은 출전 선수단 소개, 단기수어, 선수 및 지도자 대표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참석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 체육 필승'을 외쳤다.  
또 전북 체육이 한국 체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체전은 다음달 11일부터 일주일간 주 개최지인 김해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일원에서 펼쳐지며 전북에서는 49개 종목에 총 1,675명(선수 1,202명, 임원 473명)이 전북의 명예를 걸고 출전,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전북 선수단장인 정강선 체육회장은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은 그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무수히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 다"며 "정경당량 후회없는 경기를 펼치기를 바라며 전북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뉴스시스

## 전북, 한우 정액 직접 생산 길 열다

자치도 축산연구소 후보씨수수 선발... 지자체 최초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가 자치단체 최초로 한우 정액을 직접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지난 20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진행한 2024년도 하반기 가축개량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축산연구소의 후보씨수수 1두가 선발되면서 이루어진 성과다.  
이번 심의는 능력검정에 참여한 491두의 한우 수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중 36두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됐다.  
후보씨수소란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전국 암소의 예비 신랑으로 지정된 수소로, 앞으로 3년 동안 자손의 성적을 평가받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된다.  
올해 선발된 후보씨수소는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되기까지의 3년 동안 최대 2만 개의 정액을 생산할 수 있으며, 2025년 8월부터는 농가에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만희 기자